

광주체육고 훈련비 유용 감사 착수

광주체육고에서 운동부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회식비 일부가 선결제 방식으로 유용되고 전국체전 참가비 등이 부적절하게 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체육고 특성 운동부에서 코치로 활동했던 A씨는 최근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탄원서를 통해 "코치진이 학생들의 간식비, 회식비(특식비)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선결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식비 선결제·체전 참가비 부적절 운용 등 제기 학교 측 "유용한 적 없고 학생 동의-학부모 통보"

A씨는 선결제가 이뤄진 식당으로 운양동 K식당과 매곡동 J식당 등 학교 주변 4곳을 지목했다. 한 번 회식하는데 학생 1인당 2만5000원씩, 최대 75만원을 선결제한 뒤 감독이나 지도자 회식비로 돌려 사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특식은 통상 주말에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귀가하거나 개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체전 출전 시 1인당 27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학생 개인통장으로 받은 뒤 이를 다시 감독이 일괄회수에 관리하면서 지급기준인 2인1실이 아닌 6~7명이 한 방을 사용토록 하고 시합이 끝난 선수들을 조기복귀시키는 방식으로 남은 숙박비와 식비 등을 착복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운동부 감독은 지난 B씨는 "학생들 희망사항과 코치진 논의를 거쳐 뷔페나 고깃집에서 회식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 1인당 2만5000원을 넘길 때도 있고 덜 먹을 때도 있다"며 "소위 '카드깡'이나 개인적 유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체전 참가비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 뒤 지원금 범위 내에서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시합비를 견어서 사용하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훈련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지도자와 학교 관계자, 학생 등을 상대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체육고는 해당 운동부 훈련비로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6125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20개 종목 278명의 선수 육성에 따른 훈련비로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연간 9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고 있다.

조인호 기자

중국 어선, 단둥 부근서 침몰 6명 실종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부근 서해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 6명이 실종됐다고 중신망(中新網)이 20일 보도했다.

매체는 랴오닝성 동강(東港) 선전부 발표를 인용해 서해 북부에서 지난 14일 중국 어선 난위부(丹淮浦) 4145호 가 어로작업 도중 사고를 만나 승선한 선원들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사고 어선의 선주 류(劉)씨는 14일 오후 1시25분께 북위 30.13도, 동경 123.57도 수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침몰했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단둥시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즉각 긴급대응 조치를 발령하고 구난 작업에 나서 헬기를 현장에 파견하고 주위에 있는 어선과 선박에 협조를 지시했다.

19일 낮 12시까지 구조센터는 헬기 2대와 각종 선박 85척을 동원해 현장 반경 10해리 수역에서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실종 선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단둥시와 동강시의 구조대책본부는 계속 유관기관과 공조해 실종자 수색을 계속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클론 '이다이' 사망자 200명 넘어서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은 사이클론 이다이가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를 휩쓸고 간 뒤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수를 발표하면서 이 숫자는 각국에 따라서 다르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란 하치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기자 정기 브리핑에서 모잠비크에 서만 최소 84명의 시신이 확인되었고 가장 피해가 큰 베이라 시에서는 주민 50만여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말라위에서는 가뭄이나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시 사이클론의 폭우가 강타하면서 정부 통계로 92만2000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은 밝혔다. 확인된 사망자는 58명, 부상자는 577명이며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도 8만2700명이 넘는다.

짐바브웨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82명 부상자 200여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하치 부대변인은 말했다.

하와이, 모든 식당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미국 하와이주가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채택될 예정이다.

미국 내 수십개 도시들에서 식당 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州) 차원에서 식당에서의 플라스틱 그릇 사용을 금지한 것은 하와이주가 처음이다.

하와이주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명령 및 산호초를 해치는 스크림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와이주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법안은 식당에서 플라스틱 병은 물론 빨대 등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지난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시킨 캘리포니아주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내용이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하와이 주의회를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마리화나 매일 피우면 정신병 위험 5배 높아

강력한 마리화나를 매일 피울 경우 피우는 사람에게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게 해 정신병에 걸릴 위험이 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마리화나가 정신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정신 질환은 유전자나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데 있어 마리화나와 정신병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고려하도록 만들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리버풀 대학의 수전 게이저 교수는 강력한 마리화나를 금지함으로써 해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스 칼리지 런던 등의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과 브라질의 12개 도시에서 마약과 환각에 사로잡힌 900명과 건강한 사람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정신 질환을 나타낸 사람들의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나타났다.

광주 양림파출소 경찰 화재 현장서 시민 구조

광주 경찰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조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남구 양림동 한 4층 건물 지하 1층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A(23)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힘겹게 "살려 달라"는 요청만 할 뿐 정확한 위치 등은 설명하지 못한 채 진화는 끊겼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추적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가장 가까운 양림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한 강도식(51) 경위와 강종훈(41) 경사는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 술집 이름만 듣고 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어 2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강 경위 등은 지하에서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화재신고를 했다.

또 신고를 한 A씨가 쓰러져 있을 것으로 보고 마스크와 손전등만 들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틈 사이로 들어갔다.

A씨를 구조한 강 경위 등은 "4층에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려 잡을 자고 있던 40대 부부를 깨워 대피시켰다.

강 경위 등이 구조를 하는 사이 119구조대가 도착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 경위는 "신고 전화 당시 신음 소리만 들려 강력사건인 줄 알고 현장에 갔는데 연기가 피어올라 아무 생각이 없이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등지 만들기엔 분주한 왜가리. 절기상 춘분을 하루 앞둔 20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 왜가리 서식지에서 왜가리 한쌍이 분주하게 등지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때 은행 출연금 횡포 막는다

정부가 협력사업비 배정을 낮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시중은행의 출연금 횡포를 막기로 했다.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도 낱알이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한다.

반면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한다.

협력사업비만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갖는다. 전체 배점 100점중 4점에 불과하지만 금고 쟁탈전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103년 동안 서울시 금고를 지켜온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한은행에 자리를 내준 것도 협력사업비 금액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약 2000억원 많은 3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출현 경쟁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또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NIM)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고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사법 실시한다.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는 강화한다. 주민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며,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도 높인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친환경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